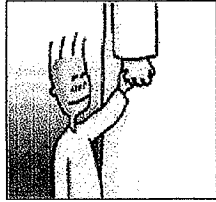


◀하나님! 나의 하나님▶ **모나미인생 송삼석**



이 땅에 첫 선을 보인 국산 불펜에게 나는 근사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다. 국제산업박람회에서 처음 본 후 1년여만에 내 손으로 직접 불펜을 만들어내다니... 나는 가슴 뿌듯하고 감격스럽기까지 했다. 나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그 때 한 남자 직원이 “모나미 153 어떨습니까” 라고 특 내 받았다. “153, 153, 153이라...” 153을 반복해 발음해 보니

부르기도 쉬웠다.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전혀 와닿지 않았다.

“도대체 153이 무슨 뜻인가” 고 묻자 되돌아온 그 직원의 답변이 걸작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 화투 좋아하지 않습니까. 1, 5, 3을 더하면 9죠. 화투놀이에서는 9, 즉 ‘가보’ 가 가장 높지않습니까. 그리고 225, 234, 135 이런 것보다는 153이 발음하기 좋구요.”

모두 배꼽을 잡고 웃었다. 혀를 차는 이도 있었고, “고작 내놓은 아이디어가 화투냐” 고 핀잔을 주는 여직원들도 있었다.

하지만 내 입과 머리속에서는 계속 ‘153’ 이라는 숫자가 맴돌았다. 이상하게도 ‘153’ 이 내겐 낯설지가 않았다.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내가 손으로 턱을 괴고 심각한 표정을 짓자 영문 모르는 직원들은 아이디어를 낸 남자 직원에게 눈총을 쬐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순간 난 뭔가 변칙하는 느낌이 들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내 사무실로 쏙살같이 달려갔다. 그리곤 성경을 찾아 요한 복음을 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 편에 던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일백 쉰 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요 21:11)

너무 놀라웠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의 수가 그 직원이 말한 것과 같은 153마리 아닌가.

‘153’ 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따르면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였다.

또 예수님의 말씀, 즉 순리에 따라 얻어진 것들은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내게 ‘153’ 이라는 숫자를 통해 기업인이 일생을 통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상도(商道)를 일깨워주셨던 것이다.

◀눈물나는 밤엔 우머의 찾발을▶ 군대는 줄을 잘 서야

군대에 가기 싫어 이빨을 모두 뽑아 버리고 신체검사를 받기위해 줄을 선 맹구. 만성치질인 맹구 앞사람 차례에 군의관은 손가락을 그의 항문 안으로 집어넣어 확인을 하였다. "만성 치질이군, 지저분한 놈. 불합격!" 다음은 맹구의 차례. "어디 아픈 곳은 없나?" 그러자 맹구, 군의관의 손가락을 한참 쳐다보더니 "아닙니다. 아픈 곳 전혀 없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절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4권 52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 12월 29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 끝났을때
송리의 기쁨을



예전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노라니 몸이 힘들고 마음에 아픔도 많지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다 보니 내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인생길이 순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노라니 가시밭길 많지만, 그때마다 내 삶의 길섶에서 따뜻하게 손잡아 주는 분이 있기에 내 인생길이 순탄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이름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노라니 실패와 유혹도 많지만, 그때마다 ‘안 된다’ 하고 일어난 내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모습이 건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노라니 눈물 흘릴 때도 있지만 눈물을 그치고 열심히 살아가는 내 모습이 건강하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착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노라니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돌아서서 후회하고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터를 넓혀 가다 보니 이제는 착해진 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 일 예 배

-송년주일-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7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38(이사야 42)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460장	다 같이
기도 Prayer		김순자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 18:1-4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심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건강한 가정.건강한 교회'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463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같이
*헌금 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을 더욱 굳세라' (1절:이근평, 임숙경 집사 가정, 2절:다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12.1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29	김순자	정희자	이근평.임숙경	임성광.장현중
5	노은숙	강은미	박혜련(한빈,오나)	정관영.정덕수
12	이규임	경덕현	이제운,마경춘	정성호,조용건
19	정희자	고성일	정관영,황경임	최득수,최장한
26	지찬영	권용일	정성호,박하림	최재학,최현철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답살들은 애정표현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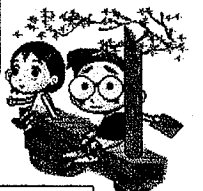
주일예배: 낮 12시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학생부:주일 낮 12시 | 청년부:토 저녁 7시



☆이쯤에서 돌아보면 얼굴 붉혔던 일도, 잠 못 이룬 송곳같은 기억도 어서 지워 버리고 그리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을 가져야 할 시간입니다. 낙엽 떨어지듯 목숨도 떨어질텐데 버려져 할 기억만 메달고 있는 파리해진 나무가 나의 모습이 되서는 안 될거라는 생각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두루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교우소식
 - *입원:임혜자 집사. Middlemore Hospital Ward 4(2층) 405호. 쾌유하심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 *등록하셔서 갈보리가족 되심을 환영합니다
김경일 집사.이선혜 성도.은선 ☎369-1520 ☐ 36 Cotesmore Way, Parnell
 - *축하:이동국(아동부). Auckland Swimming Championship에서 금메달 2,동메달 1
- 오늘은 2002년 "송년주일"
 - *하늘에서 별똥별 한 개 떨어지듯, 나뭇잎에 바람 한번 스치듯 빨리왔던 시간들은 빨리도 지났습니다. 올 한 해를 즐거움과 함께 믿음을 키워갔던 교우 여러분들로 인해 모두에게 아름다운 기억이 많이 남은 한 해였습니다.
- "2002 송구영신예배"
 - *지나가는 해를 감사로 보내며 우리의 간구를 담아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될 수 있는 한 가족 모두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장소> 본당 <시간> 밤 11시
 - *예배 후 Hall에서 친교하며 신년하례를 나누겠습니다
- 교회봉사자 역할담당(집사,봉사)을 다음주일에 알려드립니다
 - *1월 둘째주일부터 새로운 봉사자에 의해 한해를 섬기겠습니다
- 수요일예배 탐방기간: 1월1일,8일(첫째,둘째주) 수요일은 이웃교회 탐방주간입니다. 평소 생각에 두었던 교회의 수요일예배를 통해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자	교회력	모임
5	신년주일.봉사담당자	구역예배(3).결식자 급식봉사(11)
12		믿음의어머니 기도회(14)
19		전교인수련회(24-26)
26	아외예배(수련장)	당회(27)



◀착안 시인들▶
별똥 - 정지용-

별똥 떨어진 곳,
마음에 두었다
다음날 가 보려,
버르다 버르다
이젠 다 자랐소

어느 새 한 해의 끝 자락에 다다랐습니다. 어서 나이 먹어 어른들이 하는 것 나도 하기를 바랐던 어린 시절. 다 자란 오늘에서는 되레 어린 시절 꿈으로 숨어 들고 싶습니다. 얼마 후엔 오늘이 시간도 그리워질 것지요.....